



독후 활동지

타오 씨와 프렌비팜

타오 씨와 프렌비팜

이상미 지음/정희린 그림

48쪽/값 17,000원

독자 대상 : 유아>어린이>성인



키워드 : #다문화 #상생 #이웃사촌 #노동의가치 #열대작물 #정착 #포용

■ 누리과정 및 교과연계

[3~5세 누리과정]



- ✓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기 (우리 동네와 이웃에 관심 갖기)
- ✓ 의사소통 :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생각과 느낌 말하기

[초등 교과연계]



- ✓ 1~2학년(통합교과) : 우리 동네(이웃), 봄/여름(식물 가꾸기)
- ✓ 3~4학년(사회) : 우리 고장의 모습, 가족의 형태와 문화, 편견 없는 세상
- ✓ 5~6학년(실과/도덕) : 생활 속의 농업 체험, 다양한 문화와 존중, 인권과 공정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일구어간 주말농장 이야기.

고양시에 소재한 열대농장 '프렌비팜'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이주배경 주민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작은 해답을 제시한다.





타오 씨와 프렌비팜

활동 1

이해하기 1. 들에는 비가 내리는 곳, '프렌비팜'



'프렌비팜'은 '들에는 비가 내리는 농장'이라는 예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오 씨는 낯선 한국 땅에서 버스를 잘못 타 프렌비팜에 도착했어요.
고향의 향수가 가득한 이곳에서 타오 씨가 처음 느낀 기분은 어땠을까요?



농장에는 바나나, 파파야, 모링가 같은 열대 작물과 한국의 토종 채소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서로 다른 식물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사이좋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타오 씨와 프렌비팜

활동 2

공감하기 1. 우리는 모두 '지구 위'의 이웃



학교에서 만난 이주 배경 친구가 낯선 환경 때문에 조금 외로워 보인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에게 우리 동네에서 가장 멋진 곳이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는 '일일 가이드'가 되어 준다면 어디를 소개해 주고 싶나요?





타오 씨와 프렌비팜

활동 3

확장하기 3.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확장하기)



프렌비팜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어우러 정을 나누고 있어요.

서로 다른 재료가 섞여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예 : 기다림, 환대, 존중 등)

미션 : 타오 씨와 프렌비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나뭇잎 모양 포스트잇에 적어 '공존의 나무'를 완성해 보세요.

